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8호 [루게 제23060호] 주체99(2010)년 4월 18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도춘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계강동지, 리제일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 정초 또다시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주신 전투적과업을 피뎌는 심장에 받아안은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희천발전소건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추진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증중첩첩한 산밭들을 누비며 새로 닦아진 무수한 평길들을 넘으시여 조선인민군 군위 제210군부대의 조압수조공사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후 석수떨어지는 지하막장에 친히 들어가시여 공사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전투원들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지난해 4월 18일 완공된 녕원발전소에 찾아오시여 군인들이 큰일을 했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긴 군부대장병들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4,000여m의 물길굴뚝기, 수백m의 조압수조의 경사굴뚝기, 수십



km의 도로닦기, 철판 및 발전기실의 기초치기를 비롯한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오늘의 1211고지는 희천발전소 건설전투장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결사전에 떨쳐나선 군부대군인들은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훨씬 앞당겨 끝낼 결의에 분초를 다투며 치열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천적 지하막장에

아득히 뻗어간 대형굴뚝들과 만년대계로 일떠선 거대한 구조물들을 보시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군인들이 종전 같으면 몇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작업량을 불과 몇개월사이 해제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우리 군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

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이 바라다면 천만 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결사판철의 투사들인 인민군군인들의 정신력은 참으로 무진막강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의 이 위대한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녕원발전소, 미림갑문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군위 제210군부대는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인 희천

발전소건설에서도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통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한 부대군인들의 자랑스런 위훈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전망대에 오르시여 건설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철관공사장, 발전기실공사장을 비롯하여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들끓는 건설장들을 바라보시면서 발전소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자체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발전소건설전투장의 장쾌한 모습을 보시고 허리띠를 조이며 굳건히 축성한 강력한 주체공업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대자연개조사업도 자체로 해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전기마속도, 《희천속도》 창조자들인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규모의 희천발전소건설을 2012년전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따듯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선진적인 과업의 하나인 동시에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소품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소품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협주단예술인들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동지,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병삼동지를 비롯한 내무군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협주단예술인들은 이날 공연무대에 여성중창 《병사들은 노래하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여성2중창 《해돋이순간》, 여성기타5병창 《이 강산 하도 좋아》, 남성독창과 방창 《사랑의 봄빛》, 여성독창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어》, 어은금독주

《가마마차 달린다》, 이야기와 여성독창 《여기는 천리마 내 조국이랍니다》, 손풍금3중주 《축원의 노래》, 남성기타4병창 《3대자랑가》, 혼성중창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등 다채로운 예술소품들을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 인민의 보위자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자기들의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철통같이 지켜갈 내무군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격동적인 공연을 보면서 우리의 내무군장병들을 항일의 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그대로 지닌 당의

정치보위자로,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제산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었다.

계급투쟁의 전초병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내무군협주단이 정적적대가 두렵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내무군협주단의 사명과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협주단의 창작공연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예술창조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으로써 병사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력발전소는 건설하기는 힘들어도 일단 건설해놓으면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우월하다고 하시면서 수력발전소들을 도처에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공사속도가

비상히 빨라지고있는것만큼 편관기업소들에서 담당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전국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는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최상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방사업은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근본요인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돌봐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제210군부대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을 다시금 만방에 높이 떨치고 근위부대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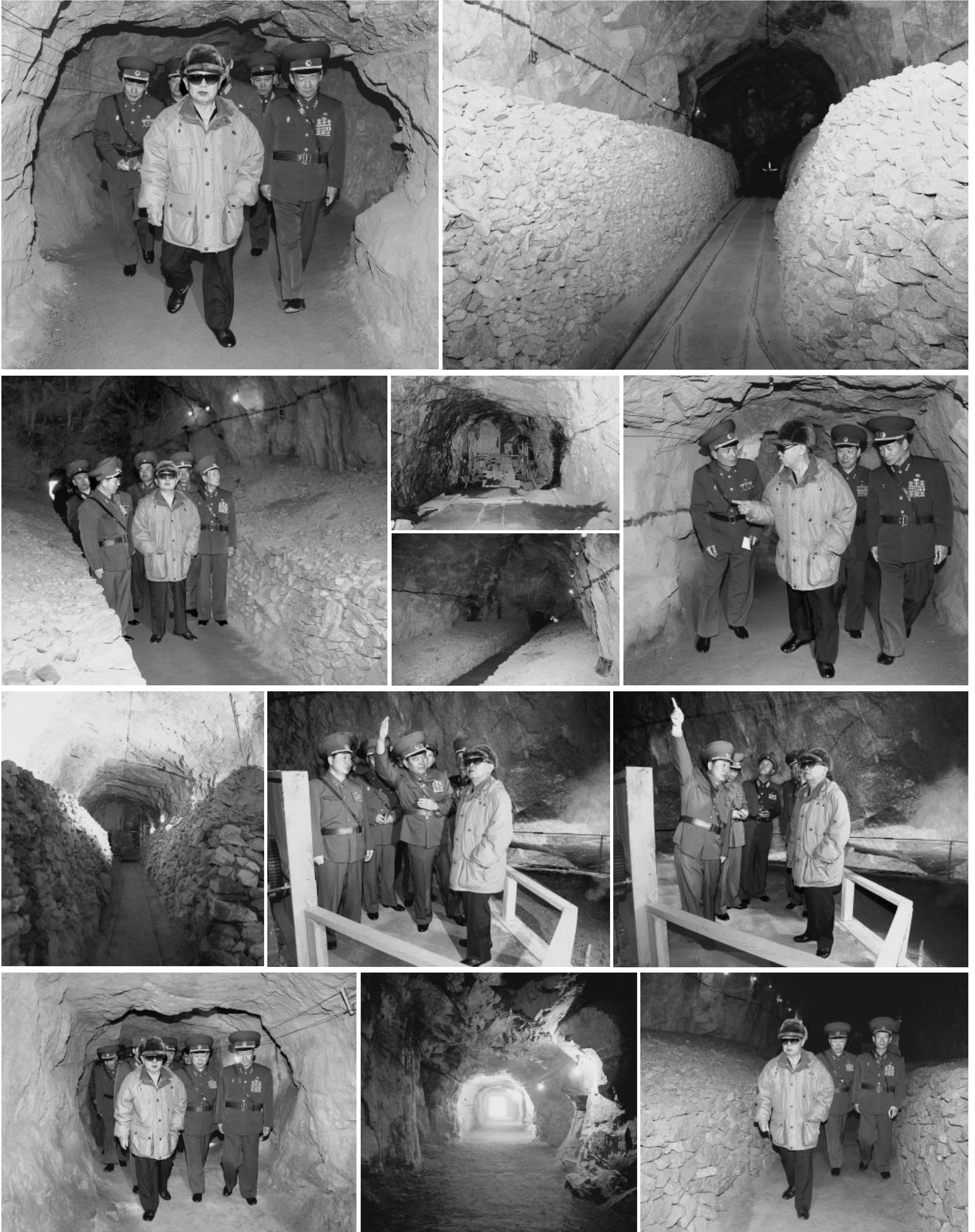
조선인민군 근위 제210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

오시어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희천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냄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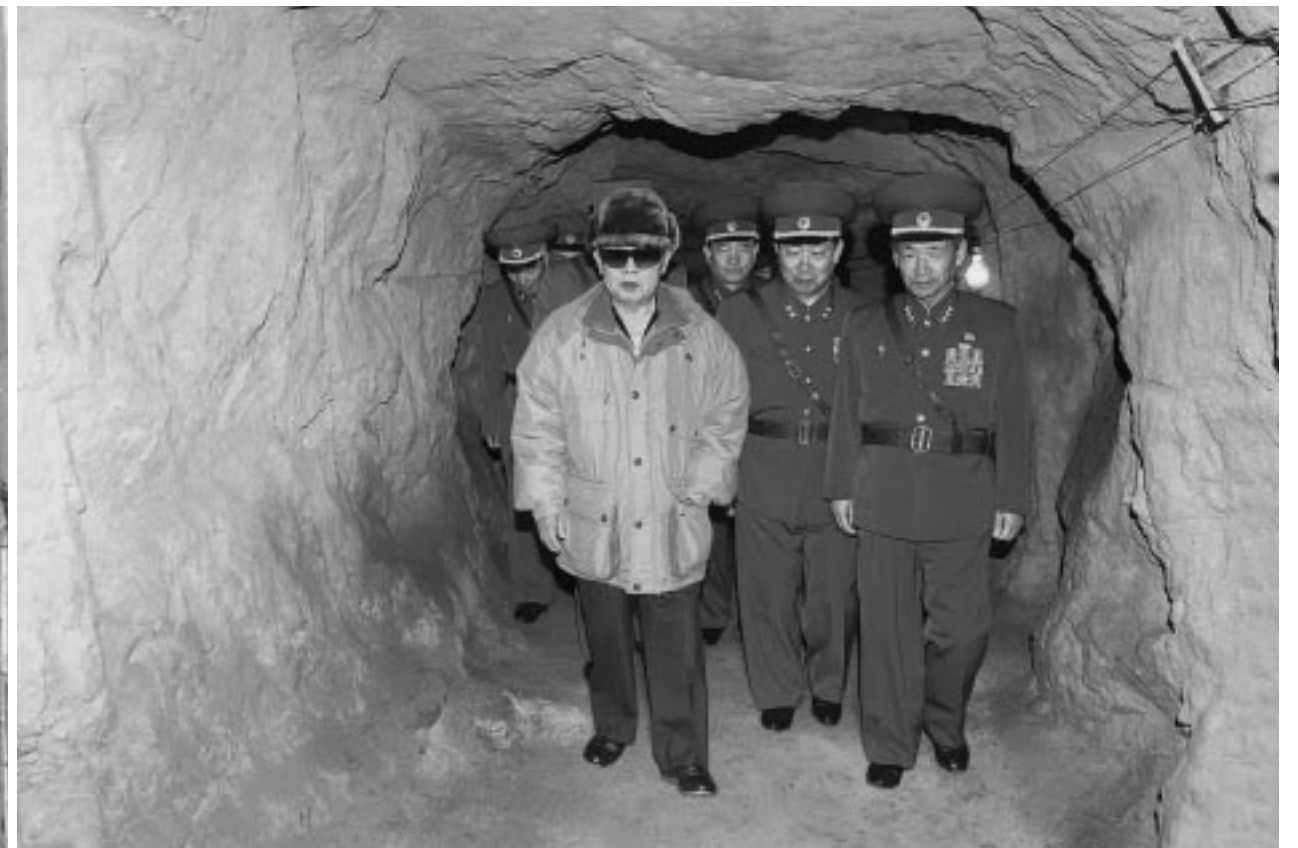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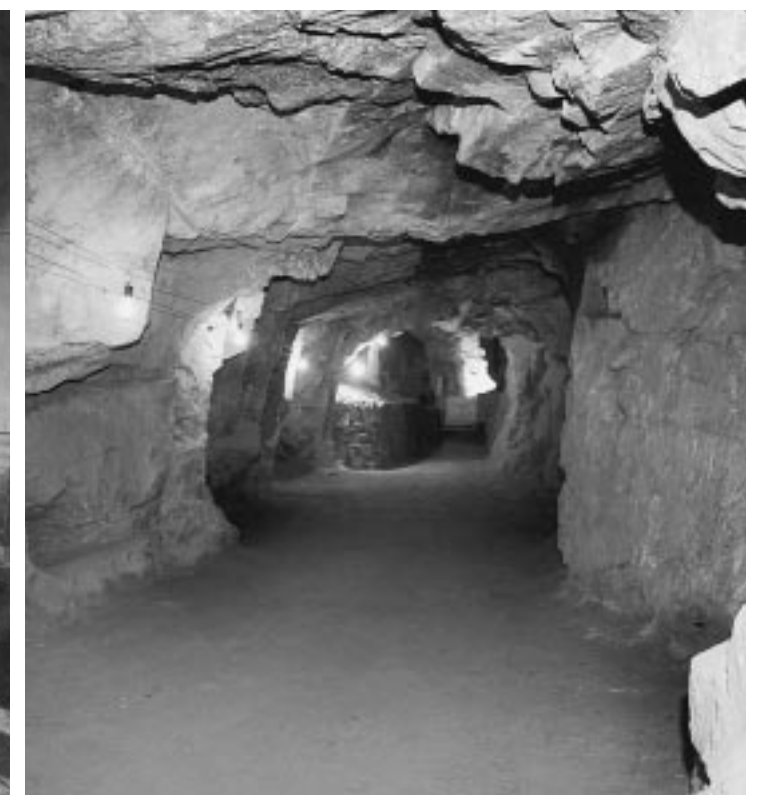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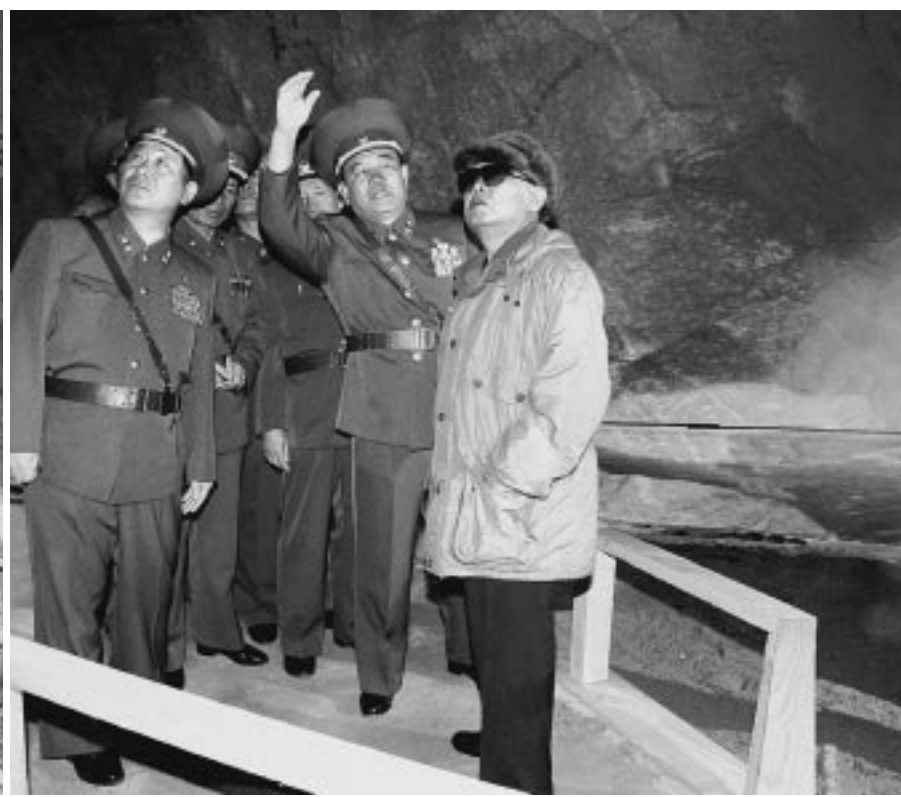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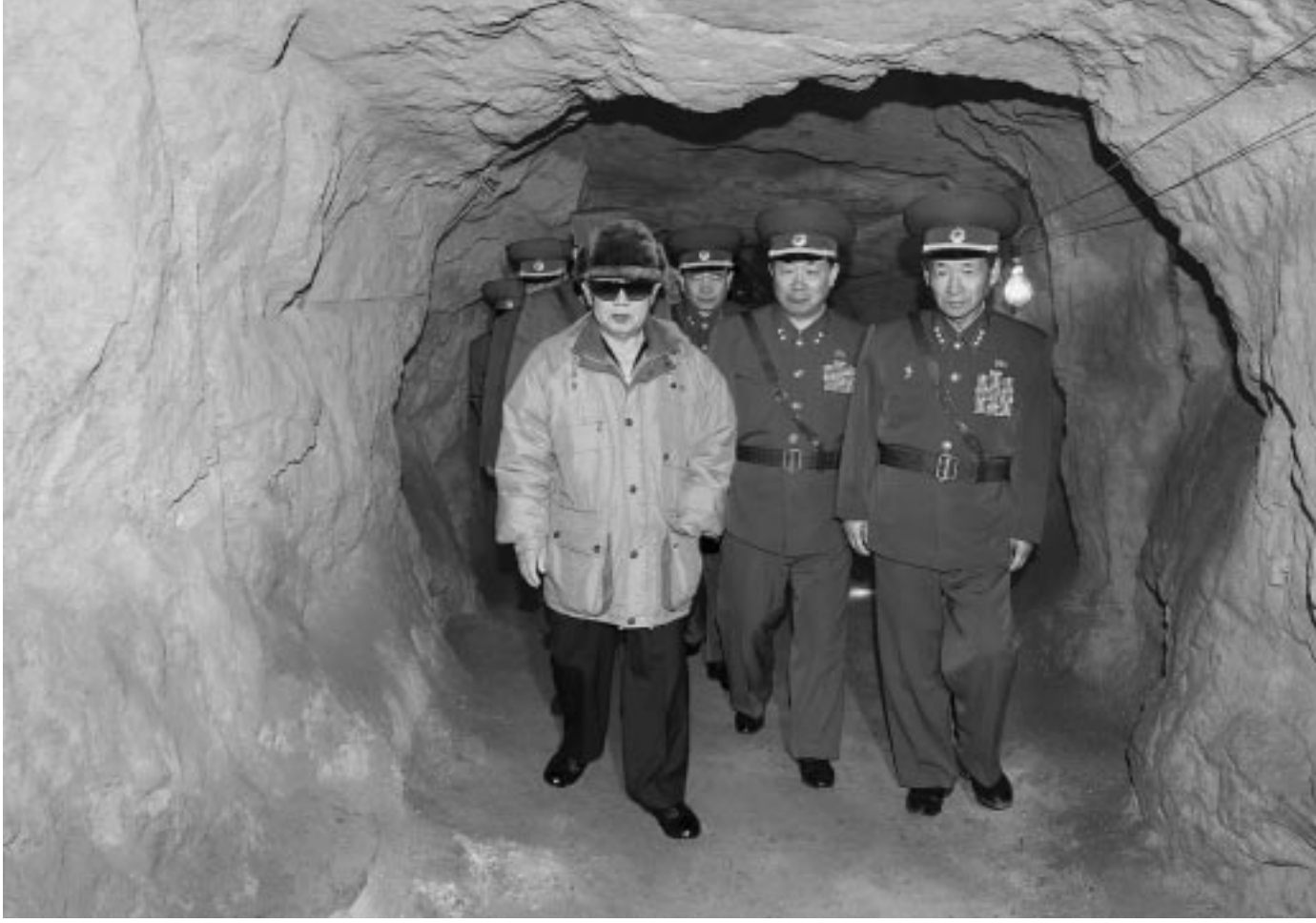
본사정치보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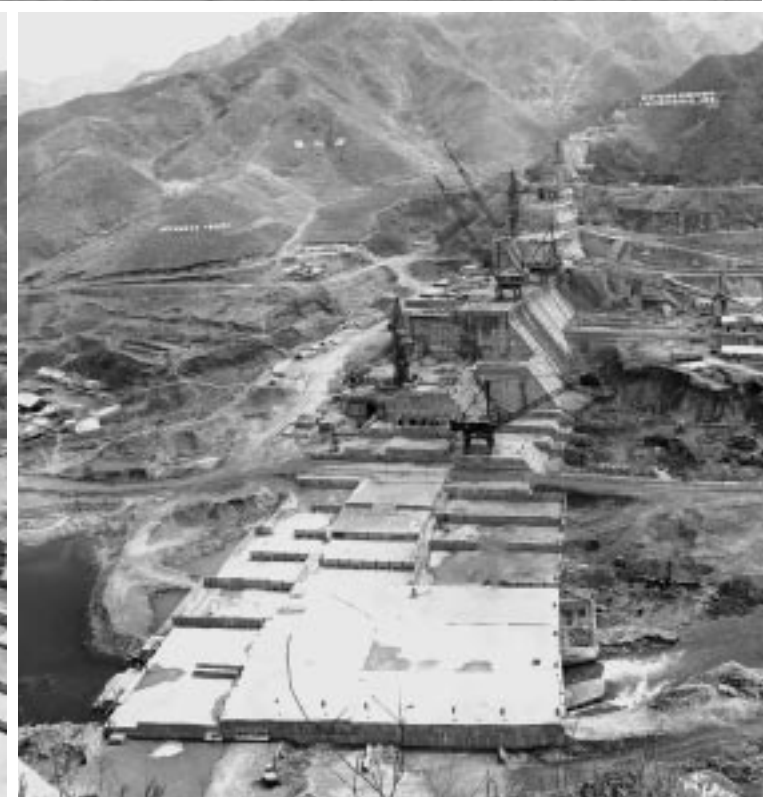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희 천 발전 소 건설 장 을 현 지 지도 하 시 였 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희 천 발전 소 건설 장 을 현 지 지도 하 시 였 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희 천 발전 소 건설 장 을 현 지 지도 하 시 였 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